

4년만에 리턴매치... "올해는 내가 웃는다"

강성훈 "우승 인연 없지만 올해 꼭"
노승열 "프로 전향 후 연습량 최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우승 문턱에서 나란히 아쉬움을 삼켰던 두 사내가 다시 만난다. 강성훈(32)과 노승열(28).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한국골프의 위상을 드높인 두 대들보가 못다 이룬 우승 꿈을 완성하기 위해 4년만의 리턴매치를 벌인다.

강성훈과 노승열이 타는 목마름을 달랠 대회는 19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파71·7238야드)에서 개막하는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2억 원·우승상금 2억1600만 원)이다. 열전을 하루 앞둔 18일 대회장에서 만난 둘은 "4년 전 바로 이곳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이번만큼은 꼭 정상을 밟고 싶다"며 당당한 각오를 내비쳤다.

●'금의환향' 강성훈과 '전역신고' 노승열
올해 신한동해오픈은 강성훈의 금의환향과 노승열의 군 제대 후 복귀전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강성훈은 5월 AT&T 바이런 빌슨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둔 뒤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최근 금의환향했다. 2011년 PGA 투어 진출 후 끊임없는 도



4년 전 정상 문턱에서 나란히 아쉬움을 삼켰던 강성훈(왼쪽)과 노승열이 19일 개막하는 신한동해오픈에서 다시 맞닥뜨린다. 5월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거두고 금의환향한 강성훈과 지난달 군 전역 후 2년만의 복귀전을 앞둔 노승열이 18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전 끝에 감격을 누린 강성훈은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승 직후 공장 다음 대회를 뛰어야 해서 제대로 된 축하파티도 열지 못했다"고 웃은 뒤 "우승을 하고 나니 현장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PGA 투어로부터 챔피언 대접도 받고 있다"면서 달라진 위상을 전했다.
모처럼 필드를 밟는 노승열의 감회도 남다르다. 2017년 11월 입대 후 지난날

전역한 노승열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전을 치른다. 그는 "마치 주니어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정말 연습에만 매진했다. 프로 전향 후 이번처럼 연습량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면서 "확실히 2년이라는 공백기가 느껴졌다.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더라. 특히 빠른 스피드의 그린에서 플레이한 자가 오래돼 적응이 힘들었다"고 자신의 최근 상태를 설명했다.

강호들 힘 못쓰는 UCL 리버풀 첫 패배 이변

인터 밀란·FC바르셀로나도 무승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가 출발부터 이변이 속출했다. 전통의 강호들이 힘을 쓰지 못한 조별리그 1라운드가 끝났다.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부터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 시즌 토트넘 핫스피어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꺾고 유럽 최강의 클럽이 된 리버풀은 18일(한국시간) 나폴리(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 F조 원정 1차전에서 0-2로 무릎을 꿇었다.

올 시즌 개막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5연승을 달리던 리버풀은 후반 37분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내준 뒤 후반 추가시간 페르난도 요렌테에게 쐐기 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 리버풀은 다음달 3일 황희찬이 몸담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와 홈경기(2차전)를 치를 예정이다. 잘츠부르크가 같은 날 1골·2도움을 뽑은 황희찬의 활약 속에 헝크(벨기에)를 6-2로 몰리치면서 F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F조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다. 인터 밀란(이탈리아)이 한 수 아래로 꼽힌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와의 홈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새 시즌 세리에A 선두를 질주한 인터 밀란은 내내 부진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첫 골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다가 가산히 패배를 면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투입한 FC바르셀로나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F조 원정 첫 경기를 득점 없이 비겨 불편한 하루를 보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군 전역 윤빛가람 특명... '위기의 제주' 구하라

21일 성남FC와 홈경기서 복귀



만능 미드필더 윤빛가람(29)이 18일 제주 유니타드 K2 클럽하우스로 돌아와 복귀 소식을 전했다. 그에게 강등 위기에 몰린 팀을 구해내야 한다는 특명이 떨어졌다.

윤빛가람은 K리그를 대표하는 테크닉 선이다. 중앙대학교 시절부터 다재다능한 미드필더 자원으로 주목 받았고, 2010년 프

로 데뷔 후에도 넓은 시야와 안정적인 패스, 뛰어난 원발슛을 앞세워 신인상과 베스트11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높였다.

2013년 제주 입단 후 2016년 중국 슈퍼리그를 잠시 거친 뒤 2017년 6월 다시 제주로 돌아온 윤빛가람은 여전한 이글스를 뽐냈다. 복귀 직후 하반기 내내 활약하며 제주 의 함점 준우승을 이뤄냈다.

그러나 윤빛가람과 제주의 만남은 그리 길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상무 상주로 입대하면서 잠시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비록



윤빛가람

유니폼은 달라져 있었지만 활약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7골과 3도움으로 10개의 공격포인트를 채웠고, 올해 역시 8골 4도움으로 상주의 공격을 이끌었다.
이처럼 윤빛가람이 계속해서 기량을 뽐낸 사이, 제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으며 위기를 맞게 됐다. 29라운드를 마친 K리그 12팀 가운데 유일하게 승점 20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최하위로 처져 있다. 승점 19로 승점 20의 인천 유니타드, 승점 23의 경남FC와 치열한 강등 싸움을 벌이고 있지

●4년 전 대회에서 우승 농친 둘

강성훈과 노승열은 2015년 신한동해오픈을 떠올리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이다. 노승열은 안병훈(28)과 함께 8연더파 공동선두, 강성훈은 7연더파 단독 3위로 3라운드를 마쳐며 대회 마지막 날 우승을 노렸지만, 최후의 승자는 최정라온드에서 버디만 4개를 낚은 안병훈이었다.

아쉬움을 안은 채 대회를 마친 강성훈과 노승열은 이후 신한동해오픈을 뛰지 않았고, 올해 무대를 통해 4년만의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둘은 대회 전날 디펜딩 챔피언 박상현(36)과 짝을 이뤄 연습라운드를 하며 코스 점검을 마쳤다. 물론 우승을 향한 의지도 함께 다졌다. 강성훈은 "유독 신한동해오픈과 우승 인연이 없었다. 2011년 준우승을 했고, 2015년에도 우승을 놓쳤다"면서 "아시아 대륙을 빛내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만큼 나 역시 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집 투성이가 된 양 손바닥을 내보이며 그간의 연습량을 대신 나타낸 노승열은 "이번 대회는 나를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만, 한 번 떨어진 순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창단 첫 K리그2 강등 위기로 내몰린 제주로선 윤빛가람의 복귀가 반갑기만 하다. 중원은 물론 그라운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최윤겸 감독이 "선수 한 명에게 전체적인 운영을 맡출 수는 없지만 기대만큼 분명히 자제겠다. (윤빛가람의 복귀로) 경기력이 좋아지리라 믿는다"고 희망을 노래한 이유다.

윤빛가람의 공식 복귀전은 21일 성남FC과의 홈경기다. 과연 윤빛가람은 전역 신고식에서 홈팬들에게 푸짐한 복귀 선물을 안길 수 있을까. 고훈준 기자

sports2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Table with 18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승부, 홈, 타율, 타점, 홈런, 홈런, 득점, 실점, 투수,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투구. Includes results for SK, LG, KT, NC, KIA, 롯데, and NCT.

Before & After 7-Game

Table showing win/loss records for SK, LG, KT, NC, KIA, 롯데, and NCT across various dates.

•타격

Table with columns for player name, team, and statistics like 타율, 타점, 홈런, 홈런, 득점, 실점, OPS.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Table with columns for player name, team, and statistics like 순위, 선수, 팀, 평균자책점, 이닝, 실점, 자책점,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프로야구 기록표

Table with columns for player name, team, and statistics like 순위, 선수, 팀, 타율, 타점, 홈런, 홈런, 득점, 실점, OPS.

•타격

Table with columns for player name, team, and statistics like 순위, 선수, 팀, 타율, 타점, 홈런, 홈런, 득점, 실점, OPS.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롯데-KIA

Scoreboard for Lotte vs KIA game.

Scoreboard for LG vs Samsung game.

Scoreboard for NC vs SK game.

•롯데-KIA

Scoreboard for Lotte vs KIA game.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LG-삼성

Scoreboard for LG vs Samsung game.

Scoreboard for NC vs SK game.

Scoreboard for Lotte vs KIA game.

•경기예고

Table with columns for team, opponent, date, and time.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